韓国・毎日経済新聞記事

『毎日経済新聞』

1987年1月1日

第6411號 (1966. 4. 23 第3種郵便物(가)級認可) 每 日 經

서울을 보는 北京의 눈

나카지마·미네오 <東京外大교수>

相互보완겨냥 民間교류 進展희망

保守派 비판·對北韓관계 고려 慎重기할듯

中嶋嶺雄

△1936년 마쓰모토(松本)市 출생
△1960년 東京外國語大 中國語科 卒
△1969~71년 日本 외무성 특별연구원(駐홍콩)
△1977년 東京外大교수(現)
△1980년 東京大에서 사회학 박사학위 취득

主要著書 : 現代 中國論
中·蘇대립과 현대
新冷戰의 시대
北京烈烈
現代中共의 정치와 전략
10년후의 中國
21세기는日本·臺灣·韓國이다

80년대 들어 東北亞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이지역의 주요 핵을 이루고 있는 韓國에 대한 中共의 시각에도 많은 변화가 있어왔고 이런 추세는 계속 될 전망이다. 北京의 시각을 정확히 보기위해서는최근국제조류속에서中共의위치부터점검해볼필요가있다고생각된다. 東北亞를 둘러싼 국제관계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이유 때문에 매우 유동적이라고 볼수 있다.

첫째는 韓半島 주변의 국제환경이 70년대와는 크게 다른 방향으로 재편성되고 있다. 70년대는 美·中共의 접근과 中共·蘇聯관계의 냉각이 기본구조였다고 볼수 있다. 美國은 對蘇전략의 일환으로 中共에 경제적 협력을 해가면서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 왔다. 이에따라 日本도 中共과의 교류를 활발히 하게되었고 韓國에 대한 中共의 태도에도 유연성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여기에 70년대말까지는 생각할수 없었던 또하나의 조류가 국제정세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즉 中共과 소련관계가 점차 완화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中·蘇관계의 개선과 함께 中·北韓, 蘇·北韓관계도 전혀 다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中·蘇냉전기에는 이를 이용해 北韓이 이른바 줄다리기 외교를 할수있었으나 이제는 좀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는것 같다. 또한 中·蘇관계개선과 함께 중공과 베트남관계도 미묘하게 개선되면서 中·蘇·北韓·베트남등 4개국이 중심이되어 사회주의국가동맹관계의 회복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이같은 커다란 두개의 조류속에서 中共은 때에따라 전혀다른미묘한반응을보이고있다. 어느때는 美國·日本과한국에 접근하는가 하면 어느때는 사회주의 원칙에 의해 차가운 반응을 보이곤 한다. 이 두가지 조류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발전해 나갈지 예의 주시할 점이라고 생각된다.

이문제는 중공내부 문제와도 연관이 있다고 본다. 이른바 經濟자유화를 표방하는 개방파와 사회주의 원칙에 입각한 보수파와의 대립이 中共내부에서 어떻게 정립해 나가느냐는 점과도 함수관계가 있을 것같다.

지난 12월초 北京을 방문하고 돌아왔지만 현지의 분위기는 역시 개방파와보수파 사이의 대립이 심각하게 존재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中共내부에는 鄧小平을 중심으로한 개방파와 陳雲·李鵬등을 중심으로한 보수파 비율이 6대4정도라고들리고있다. 예를들어 蘇聯대표들이 오면 陳·李등이 영접을하고 또한 蘇聯에가서 고르바초프서기장도 만나곤 한다. 西方측 인사들과는 잘만나지 않는다.

이같은 대립은 鄧의 경제개혁조치가 순조롭지만은 않다는데서 더 표면화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외화부족·인플레이션에부정까지도많아져내부에비관의소리가 높은것도 사실이다. 앞에서 지적한 中共의 두가지 얼굴도 이런 내부사정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 위치에서 中共의 韓半島에 관한 현실적 기본인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선中共은 정치적 입장을 떠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한국이 北韓보다 월등히 우위라는 점은 확실히 인식하고 있다. 3低에 의한 고도성장, 기술력의 축적등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있다.

新華社통신이 발행한 「경제참고」란서적에는 円高를 어떻게 이용한것인가를 한국등의 신흥공업국에서 배워야한다고까지 쓰고 있다.

여기에 서울올림픽까지 성공리에 끝난다면 국제적지위는 北韓과 비교가 되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다. 한국내부의 정치정세와 관련, 改憲문제등이 남아있지만 대체적으로 낙관적 견해들이고 90년대에는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경제력을 발휘한것으로 보는것 같다.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中共선수단이 개막식에앞서 입장하면서 관중들의 환호에 손을 흔들고 있다.

이에반해 北韓의 경제는 매우 어렵고 권력의 세습등 어러가지 어려움에 직면한 점도 [illegible]고 있다.

이대로가면 韓國은 국제 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갖게되는 반면 北韓은 폐쇄적 고립상황을 면키 어렵다고 보는것같다. 이것도 한반도 정세변화에 큰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이것이 東北亞정세의 유동화에도 작용치 않겠느냐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여기서 한가지 확실히 해야할 점은 中共과 北韓관계가 외부에 알려진 것같이 냉각되었고 蘇聯과 밀접하다는 식의 분석은 틀렸다는 점이다.

北韓의 권력세습에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몇년전부터는 인정하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오히려 그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지의 여부는 북한내부에서 더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고 87년의 서울을 보는 北京의 시각이 크게 달라진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86서울 아시안게임에 중공이 대규모선수단을 파견한데 대해 한국에서는 매우 호감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당연한 [illegible]으로 생각되지만 이것이 계속 발전해 韓·中共관계가 급격히 개선될것으로는 보지않는다. 중공이 대규모 선수단을 파견한것은 많은 금메달을 획득, 국제적 지위를 향상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도 계산에 넣었다는점을 잊어서는 안될것이다. 뿐만 아니라 北韓과의 동맹관계를 희생하면서까지서울에 접근하지는 않을 것이다. 앞서도 지적했듯이 中共내부에는 개방파에대한 강한 비판세력이 있다는 점에 충분히주의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러나 종전과같이 스포츠·학술교류는 물론 경제면에서의 증대는 기대가가능하리라고 본다. 양국은 기술적측면에서 [illegible]도 경제적 보완성이 많다.

특히 円高에 의해 일본의 입장이 어려워진점을 감안한다면 보완성은 더 커질것이다. 이렇게보면 무역면에서는 北韓보다 증가율이 더 높아질 지도 모른다.

특히 민간차원에서의 교류에는 중공측도 크게 반대하지 않을것이다.

이렇게 보면 政經분리원칙에 입각, 무역대표단 파견이나 무역사무소 설치등도 가능한 것으로 생각해 볼수 있다.

그러나 한국배가 직접 中共항에 들어가는것까지는 인정치 않을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日本이나 홍콩과 합작한회사의 배정도는 인정할 수도 있을것이고 이런 일은 무역실무면에서도 여러가지 형태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보면 韓·中共관계가 크게 개선될것이라고 볼수있다.

현재로선 그런 가능성을 전혀 부정할수는 없는 분위기이다. 또한 그길이 바람직하기도 하다.

그렇지만 중공이란 나라는 다른 나라의 정책에 영향받아 自國의 기본 외교방향을 바꾸는 나라는 아니다.

미국이나 일본으로부터 필요에 의해 경제적 지원은 받겠지만 이것이 중공의 기본전략을 바꾸는데까지 발전될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자신들이 갖고있는 세계전략의 기본 틀에서 자기들의 필요에의해 정책을 수행해갈 것으로 보는게 옳다.

미국은 한때 중공도 자신들의 SDI계획에 참여할 것이란 기대까지도 가졌지만 중공은 SDI계획자체에 대해 확실히 반대의견을 보였다. 이런 면에서 나카소네(中曽根康弘)수상의 韓·中共교량역할에도 한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것이다.

이미 지난번 나카소네수상의 訪中에서도 기대했던 것보다는 훨씬 못미치는 반응밖에 얻지 못했다는 점을 잘 음미해볼 필요가 있다.

北韓과의 관계를 희생하면서까지 접근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당분간 어려울것이다. 스포츠·학술및 민간차원의무역등은 다소 활발해질지 모르지만 그것이 정치나 외교면에까지는 연결되지 않도록 韓半島 문제에는 계속 신중히 대처할 전망이다. 그런면에서도 한국은 中共에 대해 보다 많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生命을 위한 医薬

로